

# 경남 평생학습 Brief



Brief 제7호 | 발행처 : (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 발행일 : 2021년 12월 22일

| 집필자: 윤지수 팀장(jsyun@gndamoa.or.kr)

## 부·울·경 평생교육 현황 및 발전 방안

- 부산·울산·경남(부·울·경)지역 인구는 780만명으로 전국인구(5,166만명) 15%(2021. 10. 기준, 주민등록인구)를 차지하고 있음. 부산은 336만명(6.5%), 울산 112만명(2.2%), 경남 332만명(6.4%)으로 조사되었음.
- 전국 고령화 비율은 17.0%로 2017년 이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부·울·경 지역 전체는 18.4%로 전국에 비해 1.4%p 높음.  
\*고령화 비율은 부산 20.2%, 울산 13.5%, 경남 18.2%임(2021. 10. 기준)
- 전체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은 4,541개로 수도권 지역은 2,979개로 65.6%, 부·울·경 지역은 433개로 9.5%이며, 대다수 평생교육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부·울·경 지역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은 부산 233개, 울산 42개, 경남 158개(2020년)
-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에 참여한 평생학습자 수는 전체 24,397,282명으로 서울이 18,791,062명(77.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 2,658,852명(10.9%), 부산 576,441(2.4%), 광주 406,451명(1.7%), 대구 280,956명(1.2%), 경남 273,216명(1.1%) 순으로 조사되었음.
- 통합형 평생학습 체제구축(가칭\_부·울·경 통합형 평생학습팀),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상담시스템 구축, 부·울·경 3개 지역이 인증하는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 확대, 메타버스를 활용한 평생학습 캠퍼스 운영, 부·울·경 통합 평생 학습바우처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 및 참여 확대.

## 1 부·울·경 메가시티와 평생교육

### 들어가며

메가시티(Megacity)는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일일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결된 대도시권으로 인구 1,000만명 이상 거대도시를 의미함

부산·울산·경남(부·울·경) 평생교육은 지난 3월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 보고서 중 「생애주기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동남권 협력(교육)」 사업으로 10개의 평생교육 분야 사업이 제시되었다.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보고서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공동문제 해결 및 글로벌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활·경제·문화·행정 공동체를 형성하여 부산·울산·경남이 함께 생활하고 성장하는 초광역 단일 경제권 구축전략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조성하는 것이다(경상남도 누리집, 2021).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전략이다.

동남권 부문별 발전계획 중 평생교육은 (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출범(2021.4.)하면서 3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부·울·경 평생교육 협력사업의 추진방향 및 운영방법에 대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협약서 체결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으로 공동사업 발굴과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업무가 대체적으로 유사하며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직의 구성 및 세부사업의 운영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질성보다는 동질적인 부분이 많아 개별적 추진보다는 연계협력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더 높다.

평생교육법령상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는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 사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교육방법 및 방향에 대한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에 3개 시도가 상호협력하여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다각화하고 확대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평생학습을 통해 지역의 균형 발전전략과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부·울·경 지역의 인구구조 현황, 고령화 비율,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수, 참여자 수, 네트워크 및 협력사업 등의 현황을 살펴보고, 부·울·경 평생교육진흥원의 연계협력 방안을 통해 몇 가지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인구현황

### 인구현황 및 고령화 비율

전체 인구 51,662,290명  
(주민등록인구, '21. 10월)  
중 수도권 인구 비중 50.4%  
(26,027,014명), 부산·울산·  
경남 지역 인구 비중 15.1%  
(7,797,038명)

전국 주민등록인구(2021. 10. 기준)는 51,662,29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중 수도권의 인구는 26,027,014명으로 전체의 50.4%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인구는 7,797,038명으로 전체의 15.1%이며, 2015년 이후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부·울·경 지역 인구 감소폭을 살펴보면, 부산은 3,513,777명('15. 12.)에서 3,356,311명('21. 10.)으로 157,466명 감소, 울산은 1,173,534명('15. 12.)에서 1,122,566명('21. 10.)으로 50,968명 감소, 경남은 3,364,702명('15. 12.)에서 3,318,161명('21. 10.)으로 46,541명 감소하였다. 감소율은 부산(-4.5%), 울산(-4.4%), 경남(-1.5%)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전국 및 부산·울산·경남 지역 인구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1	2015	2018	2019	2020	2021.10
전국	50,734,284	51,529,338	51,826,059	51,849,861	51,829,023	51,662,290
	(100)	(100)	(100)	(100)	(100)	(100)
수도권	24,988,368	25,470,602	25,797,418	25,925,799	26,038,307	26,027,014
	(49.3)	(49.4)	(49.8)	(50)	(50.2)	(50.4)
서울	10,249,679	10,022,181	9,765,623	9,729,107	9,668,465	9,532,428
	(20.2)	(19.4)	(18.8)	(18.8)	(18.7)	(18.5)
인천	2,801,274	2,925,815	2,954,642	2,957,026	2,942,828	2,945,009
	(5.5)	(5.7)	(5.7)	(5.7)	(5.7)	(5.7)
경기	11,937,415	12,522,606	13,077,153	13,239,666	13,427,014	13,549,577
	(23.5)	(24.3)	(25.2)	(25.5)	(25.9)	(26.2)

부·울·경	7,995,222	8,052,013	7,971,064	7,924,413	7,868,179	7,797,038
	(15.8)	(15.6)	(15.4)	(15.3)	(15.2)	(15.1)
부산	3,550,963	3,513,777	3,441,453	3,413,841	3,391,946	3,356,311
	(7.0)	(6.8)	(6.6)	(6.6)	(6.5)	(6.5)
울산	1,135,494	1,173,534	1,155,623	1,148,019	1,136,017	1,122,566
	(2.2)	(2.3)	(2.2)	(2.2)	(2.2)	(2.2)
경남	3,308,765	3,364,702	3,373,988	3,362,553	3,340,216	3,318,161
	(6.5)	(6.5)	(6.5)	(6.5)	(6.4)	(6.4)

\*출처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10월 현재 전국의 고령화 비율은 17.0%, 수도권은 14.9%, 부산·울산·경남지역은 18.4%로 전국 대비 수도권은 -2.1%p 낮고, 부·울·경은 1.4%p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우리나라는 17년도부터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고령화 비율의 속도는 가파른 증가추세에 있고, 몇 년 뒤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부·울·경 지역의 고령화 비율은 부산 20.2%, 울산 13.5%, 경남 18.2%로 부산은 이미 초고령사회이다. 고령 인구 비율이 높다는 것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해석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역시 연령계층에 맞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표 2) 전국 및 부·울·경 고령화 비율

(단위: 명, %)

구분	2011	2015	2018	2019	2020	2021.10
전국	11.2	13.1	14.8	15.5	16.4	17.0
수도권	9.5	11.4	12.9	13.6	14.4	14.9
서울	10.2	12.6	14.4	15.2	16.1	16.7
인천	8.9	10.7	12.3	13.0	14.0	14.7
경기	9.0	10.5	11.9	12.5	13.2	13.8
부·울·경	11.2	13.4	15.5	16.4	17.6	18.4
부산	11.8	14.6	17.1	18.2	19.4	20.2
울산	7.1	8.8	10.7	11.5	12.6	13.5
경남	12.1	13.8	15.5	16.3	17.4	18.2

\*출처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주)고령인구비율=65세 이상 인구/전체인구

유소년 인구(0~1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는 2021년 138.8명, 부·울·경 전체는 140.6명으로 예측되었다. 부·울·경 중 부산의 노령화지수 189.4명으로 울산(96.2명), 경남(136.3명) 보다 매우 높았다.

표 3) 전국 및 부·울·경 노령화지수

(단위: 명, %)

구분	2011	2015	2018	2019	2020	2021
전국	71	93	111.9	119.4	129	138.8
수도권	59	81	100	108	118	129
서울	71.4	101.7	127.3	138.3	151.9	165.4
인천	54.7	73.9	91	98.7	108.2	118.2
경기	50.5	67.6	81.9	87.5	95	102.7
부·울·경	67.3	90.3	111	119.2	129.8	140.6
부산	88.1	121.4	149.8	160.8	175.2	189.4
울산	40.1	56.6	72.7	79.3	87.5	96.2
경남	73.6	92.8	110.6	117.6	126.8	136.3

\*출처 : 통계청, 노령화지수(시도)

주) 1. 2019년 6월에 공표한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자료임

2. 2017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18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 시 변경될 수 있음

3. 노령화지수=65세이상/유소년인구(0~14세)\*100, 유소년인구(0~1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율

### 3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현황

#### 평생교육기관(비형식) 현황

전체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수는 4,541개로 서울 1,856개(40.9%), 경기 971개(21.4%), 부산 233개(5.1%), 경남 158개(3.5%), 경북 155(3.4%) 순으로 조사됨

전국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4,541개 중 서울이 1,856개(40.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형태별로는 언론기관 부설이 1,098개(24.2%), 원격형태 1,048개(23.1%), 지식인력개발형태 594개(13.1%), 평생학습관 475개(10.5%), 시민사회단체부설 474개(10.4%) 순으로 조사되었다.

수도권 및 부·울·경 지역으로 구분했을 때 전체 4,541개 중 수도권이 2,979개로 65.6%, 부·울·경 지역은 433개로 9.5%로 나타났다. 대다수 평생교육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 수도권 및 부·울·경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형태별 현황(2020년) (단위: 개, %)

구분	합계	초·중등 학교부설	대학(원) 부설	원격 형태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 단체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 개발형태	시·도평생 교육진흥원	평생 학습관
전국	4,541 (100)	8 (0.2)	414 (9.1)	1,048 (23.1)	413 (9.1)	474 (10.4)	1,098 (24.2)	594 (13.1)	17 (0.4)	475 (10.5)
수도권	2,979 (65.6)		173 (41.8)	908 (86.6)	205 (49.6)	250 (52.7)	804 (73.2)	451 (75.9)	3 (17.6)	180 (37.9)
서울	1,856	4	83	746	73	117	435	318	1	79
인천	152	-	12	16	22	15	50	13	1	23
경기	971	1	78	146	110	118	319	120	1	78
부·울·경	433 (9.5)		50 (12.1)	51 (4.9)	72 (17.4)	67 (14.1)	89 (8.1)	33 (5.6)	3 (17.6)	68 (14.3)
부산	233	-	24	38	31	39	51	19	1	30
울산	42	-	4	1	16	2	9	3	1	6
경남	158	-	22	12	25	26	29	11	1	32

\*출처 : 통계청, 평생교육통계

전국 평생교육 기관 수(비형식) 및 교·강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기관 수는 4,541개, 교·강사 수는 73,829명으로 조사되었다. 교육기관 형태별 기관 수 비중을 보면 언론기관부설이 1,098개(24.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원격형태 1,048개(23.1%), 지식인력개발형태 594개(13.1%), 평생학습관 475개(10.5%), 시민사회단체부설 474개(10.4%) 순으로 조사되었다. 교·강사 수는 사업장부설이 20,443명(27.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원격형태 15,154명(20.5%), 평생학습관이 12,385명(16.8%), 대학(원)부설 11,219명(15.2%)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5) 전국 비형식교육기관 기관 수 및 교·강사 수 현황 (단위: 개, %)

교육기관 형태별	2019				2020			
	기관수 (개)		교·강사 수 (명)		기관수 (개)		교·강사수 (명)	
소계	4,295	(100)	75,492	(100)	4,541	(100)	73,829	(100)
초·중등학교부설	7	(0)	31	(0)	8	(0)	25	(0)
대학(원)부설	415	(10)	13,717	(18)	414	(9)	11,219	(15)
원격형태	1,041	(24)	13,405	(18)	1,048	(23)	15,154	(21)
사업장부설	415	(10)	20,437	(27)	413	(9)	20,443	(28)
시민사회단체부설	492	(12)	3,192	(4)	474	(10)	3,068	(4)
언론기관부설	842	(20)	4,186	(6)	1,098	(24)	5,092	(7)
지식·인력개발형태	595	(14)	6,127	(8)	594	(13)	5,825	(8)
시·도평생교육진흥원	17	(0)	548	(1)	17	(0)	618	(1)
평생학습관	471	(11)	13,849	(18)	475	(11)	12,385	(17)

\*출처 : 통계청, 평생교육통계

수도권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수는 2,979개로 전체 대비 65.6%, 부·울·경 433개로 9.5% 비중임

최근 3년간 비형식교육기관에 참여한 학습자 수 추이를 보면, 2018년 16,344,658명, 2019년 16,348,842명, 2020년 24,397,282명으로 '19년 대비 '20년에 학습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서울의 학습자 수가 전체 학습자 중 77%(18,791,062명)로 가장 많았고, 전년대비 10.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경기 2,658,852명(10.9%), 부산 576,441(2.4%), 광주 406,451명(1.7%), 대구 280,956명(1.2%), 경남 273,216명(1.1%)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6) 전국 평생교육기관 중 비형식교육기관에 참여한 학습자 수 (단위: 개, %)

구분	2018	2019	2020
합계	16,344,658 (100.0)	16,348,842 (100.0)	24,397,282 (100.0)
서울	11,840,275 (72.4)	10,834,610 (66.3)	18,791,062 (77.0)
부산	549,471 (3.4)	720,906 (4.4)	576,441 (2.4)
대구	270,613 (1.7)	256,042 (1.6)	280,956 (1.2)
인천	171,674 (1.1)	229,373 (1.4)	217,712 (0.9)
광주	143,638 (0.9)	214,671 (1.3)	406,451 (1.7)
대전	171,450 (1.0)	226,174 (1.4)	138,866 (0.6)
울산	113,238 (0.7)	98,898 (0.6)	90,638 (0.4)
세종	27,256 (0.2)	34,177 (0.2)	41,692 (0.2)
경기	1,861,760 (11.4)	2,522,806 (15.4)	2,658,852 (10.9)
강원	84,732 (0.5)	104,237 (0.6)	84,524 (0.3)
충북	60,736 (0.4)	68,478 (0.4)	89,738 (0.4)
충남	219,652 (1.3)	251,764 (1.5)	256,295 (1.1)
전북	192,654 (1.2)	186,460 (1.1)	162,215 (0.7)
전남	105,152 (0.6)	98,735 (0.6)	110,837 (0.5)
경북	184,141 (1.1)	189,472 (1.2)	185,399 (0.8)
경남	312,970 (1.9)	273,699 (1.7)	273,216 (1.1)
제주	35,246 (0.2)	38,340 (0.2)	32,388 (0.1)

\*출처 : 통계청, 평생교육통계

부산·울산·경남지역의 학습자 수는 940,295명으로 전체 학습자 24,397,282명 중에 3.9%를 차지하였다. 최근 3년간 울산과 경남의 학습자 수는 감소추세로 나타났으며 특히, 부산은 전년도에 비해 2020년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학습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7) 비형식교육기관에 참여한 부·울·경 학습자 수 (단위: 명, %)

구분	2018	2019	2020	
전국	16,344,658 (100)	16,348,842 (100)	24,397,282 (100)	
소계	975,679 (6.0)	1,093,503 (6.7)	940,295 (3.9)	
부 울 경	부산	549,471 (3.4)	720,906 (4.4)	576,441 (2.4)
	울산	113,238 (0.7)	98,898 (0.6)	90,638 (0.4)
	경남	312,970 (1.9)	273,699 (1.7)	273,216 (1.1)

\*출처 : 통계청, 평생교육통계

2020년 평생학습참여율을 살펴보면 전국 40.0%, 부산 45.3%, 경남 48.4%로 2개 지역 모두 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형식교육에 참여하는 목적으로 '직업 관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국 49%, 부산 60.1%, 경남 59.6%로 나타났다. 직업 관련 목적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일하는데 필요한 기능습득'(전국 32.9%, 부산 31.8%, 경남 41.6%)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직업과 무관하다는 응답 중 건강 관리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다.

표 8) 평생학습참여율 및 비형식교육 참여 목적

구분		전국	부산	경남
평생학습참여율 <sup>1)</sup>		40.00%	45.30%	48.40%
비형식교육 참여 목적 <sup>2)</sup>	직업 관련	49%	60.10%	59.60%
	(1순위) 일하는데 필요한 기능습득	32.90%	31.80%	41.60%
	직업 무관	51%	39.90%	40.40%
	(1순위) 건강관리	23.50%	23.70%	22%
비형식교육 참여시간(연간)		63H	56H	49H
정보접근율		41.40%	35.50%	43.40%

\*출처 : 2020년 부산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조사(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0)

2020년 경상남도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조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2020)

주) 1. 평생학습참여율=지난 1년간 조사기준일 :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만25세에서 만79세까지 성인 인구 중에서 형식교육 또는 비형식교육에 참여한 성인의 비율을 말함  
2. 정규교육 이외의 구조화된 학습활동으로 공식적인 학위나 졸업장 취득을 우선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을 통해 이뤄지는 교육을 말함

※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진흥원에서 진행되는 평생학습 실태조사는 격년(부산), 3년 단위(울산), 매년(경남) 진행됨에 따라 울산은 해당 자료가 없음. 아울러 전국을 제외한 시도별 평생교육 통계자료는 자체조사로 진행되어 통계청의 공식자료가 아님을 밝힘

## 4 부·울·경 평생교육 및 네트워크

### 생애주기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

부산·울산·경남은 지난 3월 동남권 발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였으며, 교육영역 중 평생교육 분야는 총 10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생애주기별로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동남권 세부사업별로 협력사무와 연합사무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남권 협력사업으로 제시된 일부 사업은 3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다. 부·울·경 차원에서 협력하여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여 부·울·경 지역주민 전체가 평생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사무로 진행한다.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기관별 네트워크 강화 및 추진체계 활성화를 위해 인적·물적·정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이 양질의 평생학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촘촘하고 세밀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코로나 19로 온라인 교육 및 비대면 교육의 증가로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은 시급성이 요구된다.

표 9) 생애주기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동남권 협력

사업명	구분
① 동남권 지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협력사무
② 동남권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강화 및 교류행사 활성화	협력사무
③ 동남권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구축	협력사무
④ 동남권 유스캠퍼스 설립 및 운영	연합사무
⑤ 동남권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설치·운영	협력사무
⑥ (가칭)동남권 통합시민대학 설립·운영	연합사무
⑦ 동남권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 등	연합사무
⑧ 동남권 지역평생교육 통계 구축	협력사무
⑨ 동남권 수요자 맞춤형 발달 강좌 확대 및 활성화	협력사무
⑩ 2050동남권 평생교육 진흥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합사무

\*출처 :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2020),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보고서

## 부·울·경 네트워크 및 MOU 체결

업무협약서의 협력범위는

- ①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 ② 자료 공유 활용 정보 교류,
- ③ 네트워크 및 연계협력사업 구축,
- ④ 발전적 협력관계 유지에 필요한 사항,
- ⑤ 기타 이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부·울·경 차원의 평생교육진흥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서의 협력범위는 ①동남권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②동남권 평생교육 자료 공유·활용·정보 교류, ③동남권 네트워크 및 연계·협력사업 구축, ④발전적 협력관계 유지에 필요한 사항, ⑤기타 이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호협력 방안으로 정하였다.

부산·울산·경남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영역별 상호협력을 통해 부·울·경 지역주민 모두가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림 1] 부·울·경 시도평생교육진흥원 MOU 체결 및 실무협의회 운영

## 5 정책제언

### 함께하는 부·울·경 평생학습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추구에 이바지함

평생교육법에는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평생교육법 제1조)고 명시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들이 보다 더 나은 삶과 행복 추구권 실현을 위해 평생학습에 대한 확장성과 연계성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부산·울산·경남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한정된 평생교육이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부·울·경 통합형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에 제시된 평생교육 사업뿐만 아니라 더 나은 부·울·경 평생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3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해야 할 세부사업과 체제구축형 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비해 부산 및 경남지역 평생교육 참여자의 목적은 일하는 데 필요한 기능습득 때문에 평생교육(비형식교육)에 참여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직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습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개인이 참여할 수 없다면 사회적으로 도태되거나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부·울·경 3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역별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직업능력향상 교육 및 일자리 연계형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부·울·경 3개 지역이 인증하는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 확대이다. 수도권에 비해 부·울·경 지역의 평생교육 기관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주민들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학습자가 살고있는 주변을 기준으로 평생학습이 상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작은도서관, 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가칭)부·울·경 평생학습 인증기관을 발굴해야 한다. 인증기관 지정 시 운영비 지원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비를 3개 지역에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셋째, 메타버스를 활용한 평생학습 캠퍼스 운영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중심의 교육은 실습 및 체험 교육의 한계성이 있다. 공간 제약 극복 및 실습이 가능한 메타버스 통해 부·울·경 평생학습 캠퍼스로 미래의 교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양한 장비 구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행·재정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부·울·경 통합 평생학습바우처 운영(가칭\_BUG 평생학습포유)이다.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평생교육법 제16조의2\_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할 수 있다. 학습자의 자기계발 및 직업능력향상을 위해 전문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기관에서도 수강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운영을 부·울·경 3개 시도에서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상담시스템 구축이다. 양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확대가 아니라 연령계층별에 맞는 평생학습 상담을 통한 질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긴생애사회로 접어들면서 전체인구 중 고령 인구의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체계적이고 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학습 상담 거점기관으로의 역할과 학습자 관리·지원할 수 있는 일원화된 시스템 구축·운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통합형 평생학습 체제구축을 위한 3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통합형 평생학습 과제발굴 및 운영을 위해 3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직원들이 상호교차 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직의 유연성 및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가칭) 부·울·경 통합형 평생학습팀을 구성하여 함께하는 평생학습을 실천해야 한다.

#### 참고문헌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2021),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보고서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2020), 경상남도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조사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2020), 부산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조사  
경상남도 누리집(www.gyeongnam.go.kr)

경남 평생학습 Brief는 경남 평생학습 현황 및 주요과제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국내외 선진정책 제도를 소개하는 정책소식지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 견해이며 (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